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요청

인천시의회 '정책 간담회' 지역현안 신속 해결 기대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수봉지구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7일 의정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임관만(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대중·김재동·김종배·김대영·박창호 의원,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장,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미추홀구 박병재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 소통 간담회는 이봉락 의장 취임 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의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봉지구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는 3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



인천시의회에서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수봉지구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사진=인천시의회)

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 해당 지역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국장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완화했지만,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자유공원 주변 등을 포함한 경관 고도지구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이러한 정책소통간담회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해 시장 주요 업무에 대한 의회 입장이 효과적으로 전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생현안 해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

안테나

강화경찰서, 범죄예방 간담회 열어

강화경찰서가 7일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범죄예방대응기능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서장, 경찰서 본서 범죄예방대응과 직원 및 CCTV관제센터장, 지역 13개면 관서장과 도서지역 치안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중점 추진업무 및 현안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 의견 청취 및 소통을 통한 내실 있는 치안 정책 활동을 펼쳐 공극적으로는 주민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강화경찰은 집중적인 범죄 예방·대응 활동이 필요한 풍물시장, 조양방직, 화계정원 등에 위력 순찰 등 다각적 범죄예방 활동을 위해 인천기동순찰대를 요청·투입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경찰신뢰도 향상에 적극 기여한바 있다. 또한 올해 중점 추진사항으로 봄철 꽃구경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나들길 순찰 운영대', 민·경 합동 순찰인 '행복동행순찰', 각 읍면에 '찾아가는 치안정책 설명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범죄예방·대응 전략회의를 정례화 해 실질적인 범죄예방 전략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유지남 기자

인천사서원,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진행



인천시사회서비스원 권익옹호기관이 올해 인천시민 2500명에게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장애인복지시설, 학교 등을 직접 찾아가 120회에 걸쳐 실시한다. 강의는 권익옹호기관이 지난 2018~19년 양성한 장애인 학대 예방 교육 강사가 맡는다. 지난해는 126회, 2900여 명이 학대 예방 교육을 받았다.

교육은 맞춤형이다. 학생 대상 강의는 장애인의 이해와 인식개선에 중점을 둔다.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은 학대 예방에 초점을 맞춘다.

장애인 학대 개념과 문제점, 장애인 인권 등을 주로 다룬다. 시설 이용자는 물론이고 신고의무자인 종사자, 교육·보육직원, 의료인, 활동지원사 등이 대상이다.

김동현 기자

위생상태 우수 음식점 등급 부여한다

인천시, 음식점 880곳 신규 위생 등급 지정 식중독 사전에 예방

인천시가 올해 시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지·복합쇼핑몰·맛집 거리 등을 중심으로 위생등급 특화 시범 구역을 조성하고 음식점 880곳을 신규 위생등급 지정 업소로 선정할 계획이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을 대상으로 업장 위생상태

를 평가해 점수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다.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여 식중독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음식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객석·객실·조리장 등의 위생상태 및 종사자 위생관리 등 44개 항목을 평가해 80점 이상 업체에는 등급에 따른 지정서 및 표지판을 발급하고 위생용품 등을 지원한다.

현재 전국에는 3만5500개소가 지정돼 있으며, 그중 인천지역에는 음식점과 커피 판매점 등 1938개소가 지정돼 있다.

시는 소규모 영업장 및 고령의 영업자 음

식점·지역 관광지·다중이용시설 등에 입점해 있어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음식점과 배달음식점·아파트 상가·시장 등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지역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수준 진단 및 위생등급 지정 신청 시 보완 사항 안내 등 사전 1:1 현장 맞춤형 기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위생등급 업소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지정업체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까지 등급을 받은 음식점을 대상으로 현장평가를 실시해 등급별 지정 기준 미달 업소에는 부적합 처리 및 지정

취소를, 유효기간 종료 및 폐업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등급 지정서 및 표지판 회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확대해서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생등급 지정 받은 업소가 자금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우대 혜택을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강화군가족센터, 인천시교육청 공모 선정

강화군가족센터가 인천교육청이 실시한 '2024 다문화에 비학교와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인천시 11개 가족센터 중 유일하게 선정됐으며 총 4100 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강화군가족센터는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중도입국 학생 및 외국인·다문화 자녀들의 조기 적응을 위한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한다.

개인별 능력에 맞춰 한국어를 집중 교육하며, 다양한 문화 체험과 예절교육 등을 통해 다문화 자녀들의 수업 능력 향상 및 사회적 발달을 돕는다. 또한 심리미술과 음악 프로그램을 자녀와 학부모 모두에게 진행해 정서적인 지원도 병행한다.

박우석 센터장은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문화자녀들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강화군가족센터는 다문화예비학교 교육 참가자를 오는 14일까지 모집 중이다.

유지남 기자



유정복원풍에서 네번째 시장이 7일 시청에서 특수유공 공무원 및 모범선행시민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추진

남동구,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혈당·혈압계, AI 스피커 등 활용

남동구가 지난해에 이어 만성질환 및 건강관리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은 6개월 동안 스마트기기(블루투스 활동량계·체중계·혈압계·혈당계·AI 스피커)를 활용해 스스로 건강을 체크하고 개인별 건강 상태에 따라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동안 건강위협

요인에 따라 월별 과제가 제공되고, 건강전문가(간호사)를 해 비대면 건강컨설팅 및 맞춤형 건강정보를 받는다.

홀몸 어르신, 건강위험요인(혈압·혈당·BMI) 판정 수치 중 1개 이상인 어르신, 건강행태 개선이 필요한 어르신 등 우선순위에 따라 참여자를 모집하며 건강 측정에 사용되는 스마트기기는 사전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기준에 따라 배부된다.

박종효 구청장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며 비대면 건강서비스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에 스마트한 건강관리로 어르신들께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분말형태 식품 30개 안전 실태 조사

인천시, 14건 유통차단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 식품 안전성 확보 '최선'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먹기가 쉬워 건강관리를 위해 많이 소비되는 분말형태 식품 30개에 대해 안전 실태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씻가루) 기준을 초과했다.

금속성 이물은 주로 분말·가루·환제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료를 금속재질의 분쇄기로 분쇄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며, 분쇄 공정 이후 자석을 이용한 제거 공정을 통해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 이번에 금속성 이물 기준(10.0mg/kg 미만)을 초과한 제품은 모두 14개 제품이었으며 이중 기준치를 최대 24배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이에 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사실을 관할 지자체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

보해 해당 제품이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부적합 식품을 공개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업체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 조사는 '먹거리 안전망 사업'의 일환으로 시 위생정책과와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업해 진행했으며, 향후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소비 각성효과 제품 안전성 검사, 다이어트 표방식품 부정물질 검사 등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기획된 사업 외에도 식품의 위해물질을 분석하는 기술과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 다양한 소비형태에 대한 수거 및 검사를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권문주 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먹거리 안전망 사업을 통해 시민 소비 실태를 고려한 촘촘한 검사를 실시해 신뢰도를 높이고 유통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

묵묵히 지역사회 지키며 공헌한 '인천 영웅들'

생명 구한 박진하 간호사 등 시청 접견실 초청 표창 수여

인천시가 7일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켜낸 의인들을 시청 접견실로 초청해 시장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 대상자는 심폐소생술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구한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목동병원 소속 박진하 간호사, 인천교통공사 소속 원길연 대리, 영종소방서 소속 송영준 소방위, 장병주 소방장, 이

은석 소방교와 역내 절도범 검거에 크게 기여한 인천교통공사 소속 안지홍 대리와 유종민 사회복무요원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들을 격려하며 "투철한 사명감과 이웃을 생각하는 사려 깊은 마음으로 의로운 일을 행함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남다른 선행을 통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이바지한 영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포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묵묵히 지역 사회를 지키며 공헌한 모범선행시민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김동현 기자

민관 복지정보 총망라한 '온통복지' 시연회

미추홀구, 맞춤형 복지 제공 구청 누리집 통해 접속 가능

미추홀구가 7일 민간 복지 기관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민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는 공유복지 플랫폼 '온통복지' 시연회를 열었다.

이날 구는 운영 경과보고, 구민 접근성과 활용성에 중점을 둔 시연 보고를 진행했다.

이영훈 구청장은 "온통복지를 통해 개인의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민관기관과 복지 협력의 장을 마련해 소외되는 구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통복지'는 미추홀구민의 공유복지 망으로 민관 복지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구청 누리집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김성웅 기자

인천시, 치유농업 시설 운영자 교육 실시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치유농장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2024년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2기 통합과정(기초·심화) 교육'을 11일부터 모집한다.

'치유농업'이란 농장과 농촌 경관을 활용해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제공되는 모든 농업 활동을 말한다. 지난해 처음 개설된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은 21명의 치유농장 전문가를 배출했다.

교육대상자는 치유농장을 운영하거나 희망하는 농업경영체가 있는 농업인이며 다음달 3일부터 인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을 수료하면 농촌진흥청에서 내린 시행하는 우수 치유농업 시설 인증제의 신청 자격을 갖추 수 있다. 김동현 기자